

잔류허용기준 강화(PLS 도입)에 따른 문제점은?

▶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됩니다.

전

규제물질 목록화제도(Negative List System)로
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

후

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
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

▶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.

전

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
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

후

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
현행은 코덱스,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

PLS가 시행되면 코덱스,
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
삭제되고 0.01ppm
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

▶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시 적용사례

농약 적용사례

농산물	현행	개정	
콩 	코덱스 기준 적용 코덱스 : 20ppm / 한국 : 미설정	20ppm 적용	0.01ppm 적용
유자 	국내 유사농산물 적용 코덱스 : 미설정 / 한국 : 미설정(감귤 : 0.5ppm)	0.5ppm 적용	0.01ppm 적용
배추 	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코덱스 : 미설정 / 한국 : 미설정(최저기준 : 0.05ppm)	0.05ppm 적용	0.01ppm 적용

❖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이 미량 검출되면 농산물 폐기,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★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!

1.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.

-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
- 다른 사람 추천에 의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

2.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세요.

3.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지켜주세요.